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3. 8. 17.(목) 10:00 < 8.17.(목) 석간 > 배포 2023. 8. 16.(수)

개최지 결정까지 100일!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상황 점검

- 장관, 대외교섭 · 심포지엄 및 경쟁 PT · 홍보 등 세부계획 점검
- 100여 일 남은 시점, 11.28일 투표 날까지 유치활동 총력 전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이창양 장관은 8.17.(목) 오전,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이하 유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유치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그간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점검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11월 28일)까지 약 100일 남은 시점에서 대외 유치 교섭활동, 국제박람회기구(BIE) 심포지엄과 경쟁 PT, 대외 홍보 등 유치 활동 전반에 대해 논의하였다.

유치위원회 사무국을 맡고 있는 산업부 유치지원단은 유치위 차원의 대외 교섭과 BIE 일정(심포지엄, 경쟁 PT) 대응, 홍보 등 전반적인 유치계획을 보고하였다. 외교부에서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교섭을 모든 외교활동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앞으로 양·다자 회의, 방문·방한 등 계기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정부 차원의 교섭계획을 발표하였다. 민간유치지원위(사무국 : 대한상의)에서도 하반기 민간 기업의 유치교섭계획을 발표하면서 개최지 결정까지 민간 차원에서도 적극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다.

이창양 장관은 “작년 7월 정부 유치위원회 출범 이후 1년 넘도록 숨가쁘게 달려오면서 우리 지지국이 많이 늘었다”고 언급하면서, 유치지원단, 외교부, 국조실, 부산시, 대한상의 등 관계자들의 그간 노력에 사의를 표했다. 다만, “타 후보도시(사우디 리야드, 이태리 로마)의 인지도 등을 볼 때 모두 만만치 않은 경쟁상대들인데다 각자의 강점을 바탕으로 유치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어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이라고 평가하면서, “산업부 차원에서도 가용한 협력 레버리지를 최대한 동원하여 표심 확보에 끝까지 적극 나서겠다”고 언급하였다.

이창양 장관은 “2030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는 안으로는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밖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제·외교 지평을 확장하여 대한민국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기회”라고 강조하고, “올해 말 유치 성공의 결실을 맺기 위해 승부는 이제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남은 100여 일간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지원단 기획팀	책임자	팀 장	정홍곤 (02-2036-9810)
		담당자	사무관	김형은 (02-2036-981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상황 점검회의 개요**

◇ **개최지 결정투표(11.28)를 약 100일 앞두고,** 대외교섭 및 BIE 일정(심포지엄, 최종 PT) 등 **유치활동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점검·논의**

□ 개요

○ **(일시/장소) 8.17(목) 10:00~11:00 / 유치위원회(광화문D타워) 대회의실**

○ **주요 참석자**

- **(산업부)** 장관, 통상협력국장
-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
- **(국조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
- **(유치위)** 유치지원단장, 기획본부장, 대외협력본부장 등
- **(부산시)** 엑스포추진본부 대외협력과장
- **(민간위)** 대한상공회의소(민간위) 사무국장 등

○ **(주요내용) 유치 동향 보고, 향후 대외교섭 및 BIE 일정**(심포지엄, 경쟁 PT, 홍보 등) **추진계획, 민간위 활동계획** 등 논의

□ 세부계획(안)

일정		주요 내용	비고
10:00~10:05	5′	모두발언	산업부 장관
10:05~10:10	5′	(안건1) 유치동향 및 향후 계획	유치지원단
10:10~10:13	3′	(안건2) 하반기 유치교섭 계획	외교부
10:13~10:18	5′	(안건3) 민간위 유치활동 계획	민간위 사무국
10:18~10:55	37′	자유논의	참석자
10:55~11:00	5′	마무리발언	산업부 장관

* 모두발언까지 공개